

시민대책회의 “정부·與에 면죄부 준 꼴”

■ 광주 시민단체·실종자 가족 ‘세월호법 합의’ 반응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진상규명 이뤄져야”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여아가 지난 31일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유족들의 의견을 일부 반영하긴 했지만, 진상 규명에 다가서기엔 부족하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실종자 가족들은 여아 합의안에 대해 “희생자들을 위해서는 정확한 진상 규명이 필수”라는 원론적인 의견이 나왔을 뿐 구체적인 평가나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였다. 세월호 참사 광주시민대책회의 김영정 집행위원장은 “이번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말해서 재정치민주연합이 정부 여당에 굴복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여아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결국은 정부, 여당 등 세월호 참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관 있는 기관과 개인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합의문에는 ‘특검 후보 선정에서 유족과 상의하고 유족이 반대하는 후보는 제외한다’, ‘조사위원회에 동행명령장 발부 권한을 주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등 나름 권한을 부여한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특검 임명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1000만 원을 납부하고 진상조사

위원회 출석요구를 거부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광주시민상주모임 관계자는 “세월호 특별법 여아 합의안에 대해 구체적 입장 표명이나 평가는 현 시점에서 부적절하다”면서도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지지 못한 세월호 참사 진상에 대해 모두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우리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용태 전교조 광주지부장도 “세월호 가족 대책위의 입장을 최우선으로 따를 것”이라고 전제한 뒤 “수사권과 기소권이 제외되고 동행명령권 정도 포함된 특별법 가지고 성의없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 까”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그는 이어 “국가적 대 참사에 관한 진상 조사를 하

기 위한 특별법인데 이정도 합의안 가지고 청와대를 비롯해 각종 권력기관에 대한 성의없는 조사를 하고 진상 규명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진도도 머물고 있는 실종자 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 여아 합의안보다는 남아있는 9명의 실종자 수색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원론적인 반응도 나왔다.

실종자 가족 권오복씨는 “실종자 가족들은 실종자를 찾는 게 최우선이기 때문에 거기(세월호 특별법 여아 합의안)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면서 “안산에 있는 세월호 가족 대책위가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담아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5 해질 15:14
해짐 17:37 달짐 02:35

낮에도 쌀쌀한 바람 중국 중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7/15	보성	맑음	4/15
목포	맑음	8/15	순천	맑음	6/15
여수	맑음	8/15	영광	맑음	7/15
나주	맑음	6/15	진도	맑음	6/16
완도	맑음	8/16	전주	맑음	4/14
구례	맑음	4/15	군산	맑음	4/14
강진	맑음	6/15	남원	맑음	2/14
해남	맑음	7/15	홍산도	맑음	11/15
장성	맑음	5/15			



◇바다 날씨

방향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남서	북서~북	북서	북
남해	남서	북서~북	북서	북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0:53	03:59
여수	23:23	16:21
	12:01	06:03
목포	00:00	18:32

◇주간 날씨

4(화)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	☀	☀	☀	☀	☀	☀
6/17	5/18	8/18	6/19	5/19	9/19	10/19

◇생활지수

식중독	37
운동	80
빨래	90

‘세월호 운항 책임’ 청해진해운 임직원 형량은

6일 결심공판 관심...현행법상 징역 7년 6개월까지 가능

세월호 승무원들과 함께 수백명 승객들의 목숨을 앗아간 책임을 물어 기소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의 신문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검찰 구형량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실상 ‘운항해서는 안 될’ 세월호를 띄워 많은 화물을 부실하게 묶어 실어 침몰에 이르게 한 책임이 크지만 현행법상 적용된 법규에 따른 형량 등은 선원들에 비해 훨씬 못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오는 6일 열리는 청해진 해운 김한식 대표이사 등 11명의 피고인에 대한 결

심 공판은 검찰의 범용 적용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논고(論告)와 재판부에 적정한 형을 선고해 달라는 구형, 피고인들 변호인들의 최후 변론으로 진행된다.

이들 대부분 업무상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선박매물, 업무방해 등이 적용된 점을 고려하면 김한식 대표와 안모 해무이사를 제외한 9명에게는 다수 혐의가 병합될 경우 가장 높은 범죄 최대 형량의 1.5배를 가중, 7년 6개월까지 처벌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사상 최악의 참사를 야기한 책임에 걸맞게 낮은 형량이 구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김지을기자 dok2000@



‘광주의 빛’ 세계로 지난 31일 오후 광주 북구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동아시아 문화도시 2014 광주’의 폐막행사인 ‘꿈의 향연(연출·안무 박진수)’에서 한국의 ‘AsiaN 빛’ 공연이 펼쳐지고 있다. 시련의 역사를 딛고 세계로 나아가는 광주의 빛을 미디어아트와 무용, 음악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세월호 승무원 선고 공판

광주지법 방청객 20명 모집

오는 11일 열리는 세월호 승무원들의 선고 공판을 방청할 희망자를 모집한다.

광주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선고 공판 방청 신청자를 3일부터 5일까지 광주지법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방청 여부는 6일 추첨으로 결정한다.

모집인원은 주범정인 201호 법정(103석)과 보조 법정(75석)에서 10명씩으로, 다만, 보조 법정 방청객은 모니터로 재판 상황을 볼 수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서도 재판 실황을 중계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전남 아침기온 폭

3일 가을비가 그친 뒤 광주·전남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등 당분간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으나 북서쪽에서 불어오는 찬 바람의 영향으로 점차 기온이 떨어지고 체감온도도 낮아져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했다. 또한, 5일까지 찬 공기가 머무르면서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일부 내륙산간에는 얼음이 얼거나 서리가 내릴 것으로 보여 시설물 관리와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기용기자 pboxer@

목포, 인구 10만명당 범죄발생 비율 상위권

광주, 절도·성폭력 도시 ‘발명예’

여수·순천, 간통·도박범죄 빈번

목포의 인구 10만 명당 범죄발생 비율이 전국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게 됐다.

목포는 12개 범죄 항목 중 강도·폭행·상해·도박·아동유괴 범죄 발생 비율이 전국 상위 3위권 안에 들었으며, 광주는 절도·성폭력 발생 비율이 높은 도시로 꼽혔다.

2일 대검찰청이 전국 각급 수사기관(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의 범죄통계연표를 토대로 작성한 ‘2014 범죄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목포에서 발생한 강도범죄는 인구 10만 명당 7.9건으로 전국 평균 3.9건 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 서산으로 1.2건.

목포는 또 ▲도박 34.4건(1위·전국 평균 13.0건) ▲아동유괴 0.8건(1위·0.2건) ▲폭행 428.3건(2위·247.2건) ▲상해 212.9건(2위·110.7건) 범죄 발생 비율도

상위권을 차지했다.

광주는 ‘절도·성폭력 범죄도시’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절도 범죄발생비율은 843.3건(2위)으로 평균 568.2건보다 275.1건 많았다. 전국 3위를 차지한 성폭력 범죄는 전국에서 52.6건이 발생한 반면 광주에선 21.3건 더 많은 73.9건이 발생했다.

순천과 여수에선 간통(5.4건·2위·3.1건)과 도박범죄(29.5건·2위·13.0건) 발생률이 전국 다른 도시에 비해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

광주·전남지역 주요 도시에서 강도·성폭력 등 범죄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범죄 도시’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선 범죄유형별 분석 등 치안수요에 따른 맞춤형 치안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다. 한편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총 범죄 건수는 200만6682건으로 인구 10만명당 3921건꼴이었다. 이는 전년대비 194만 4906건보다 3.2% 증가한 수치다.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시간대는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였다. 범죄로 인한 사망자는 4820명이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정은주·김석 치과

문의처 062)365-7528

진료시간

- 평일 | 오전 9시~오후 7시
- 야간진료(화요일) | 오전 9시~오후 9시
- 토요일 | 오전 9시~오후 4시
- 점심시간 | 오후 12시 30분~오후 2시
- 주일, 공휴일 휴진

개원 일시

2014년 11월 1일(토)

12시~오후 4시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로 154 (월산동, 가람빌딩 3층, 돌고개역 1번 출구)

오시는 길

KT서광주지사

서문교회

돌고개역 1번 출구

양동시장

서구청

신협

정은주·김석 치과 (가람빌딩 3층)

MBC

성황리 공개중

순천 최초 수역형 미니아파트 리가안

적게 투자하고 크게 누려라!

1억투자시 월160만원 수익

1599-1129

생활편의·교통·문화·교육의 중심에 위치

지상 2층의 하층정원과 100대기종의 옥상하늘정원

무인택배시스템

구. 순천만정원(삼남회장이 1km내에 위치 (순천만 정원 조망권))

휘트니스센터

방문고객 사은품증정

M/H 홈플러스 풍덕점 주차장 뒷편